내 밥그릇 내가 챙기기 이젠 그만하자

(히3:7~19)

7.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9.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밥그릇 내가 챙기기 이젠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어느 간호사 분이 계시는데, 월급을 40만 원 받을 때 모아놓은 돈이 무일푼인 상태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10억을 모으고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결혼 10년 10억 만들 왕비 재테크>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왕비'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성이 왕가고 이름이 비라서 왕비인가 했더니, 가명으로 쓴 거였어요, 아마 책의 제목의 메시지를 더 강화시키려고 가명까지 썼나 본데, 그 부제가 재밌습니다.
'10년 뒤에 궁상맞은 아줌마로 늙을 것인가, 도도한 왕비로 살 것인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책 속에 '믿을 건 나뿐'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으로 다룬 내용을 제가 좀 기록해왔어요.
한 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결국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10년 전부터 가계부를 쓰면서 철칙을 세웠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 왜? 절대 정부는 내 밥그릇에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도 이 철칙을 냉정하게 실천한다. 나는 나만 믿는다. 나 역시 대한민국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현 세상은 먼저 내가 살아야 나라가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는가?'

참 당차지 않습니까?
이분이 73년생 간호사이니까 이 책이 2006년에 처음 쓰여 지고 계속 증보판이 나온 것 같은데, 그때 나이가 몇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차게 세상을 향하여 선전포고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밥그릇 내가 챙긴다는 마음으로 다부지게 먹고 부동산 재테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왕좌왕하잖아요? 그 정책에 따라서 흔들릴 것 없고, 다부진 마음으로 이렇게 변하면 이 물결 따라, 저렇게 변하면 저 상황에 따라서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부동산에 재테크했더니 무일푼으로 시작했는데 결혼 10년 만에 10억을 벌었다, 라는 얘깁니다.
아~ 참! 신기에 가까운 재테크의 달인이에요.
우리 집안 여자 중에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살 텐데.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도 틀렸고.
이제는 천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며느리나 그런 왕비 재테크가 가능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밥그릇 내가 챙긴다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당한 느낌이 드는 모토와 관련해서, 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인간과 내 밥그릇 내가 챙기기라는 모토의 관계를 보려면 성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맨 처음으로 가봤더니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간이에요.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 밥그릇에 밥을 채워서 입속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지으셔서 그 에덴을 통째로 이들에게 줘버리십니다.
이들의 밥그릇이 에덴동산 자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밥그릇으로 밥을 먹으면서 평생 살게 돼있었던 것이에요.
내 밥그릇 내가 챙긴다고 하는 관념조차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황에서는 밥그릇을 챙긴다는 관념이랄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밥그릇 내가 찾는다고 하는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하면 잘할수록 야무지고 실속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모토가, 사실은 죄 짓고 타락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저주였다는 거예요, 저주.
참 의미가 다르지요?
이거는 부러워할 것도 다부진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요 원죄적 기질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너무 유명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것은 이방인이나 취할 수 있는 태도인데,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시 말해 영적인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계셔도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될 경우는 여전히 고아고, 육체적으로 고아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밥그릇 내가 챙긴다는 그런 모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까지 제일 앞의 1절에서 보여준 주제의 연속입니다.
1절에서 '함께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번역하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망치를 들고 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아예 예수님에게 못 박아버리라는 얘깁니다.
이처럼 못 박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끊어지니까, 자꾸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세의 말을 들어가면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고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짚어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생각만 고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밥그릇 내가 챙기지 않아도 되는, 11절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안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은 전혀 내가 챙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밥그릇을 다 챙겨주시는 삶, 그리고 내가 챙기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지 이 몸이 살아있을 때 손 한번, 발 한번, 입 한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챙기는 사람들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일점일획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유산돼버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챙기는 사람들이지 밥그릇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그릇 챙긴다는 말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이해하면, 꼭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육체와 연관되어진 환경 속에서 내 것으로 땅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승진도 될 수 있어요, 입사동기들을 물리치고 내 밥그릇 챙긴다, 같은 국장이었던 사람들 쳐내고 내 밥그릇 챙겨서 장관으로 올라간다, 다 내 밥그릇 챙기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내 밥그릇 챙기기가 안식이 깨어지고 불행하고, 엄청난 부담과 짐을 안고 사는 저주받은 삶의 특징 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 밥그릇 챙기기의 대표적인 예로,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내 밥그릇 챙기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 번 저주를 받고 망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하나님과 결별하는 것이고 십자가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이 얘기를 한 번 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7절에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육신을 입게 했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부활하고 승천하게끔 했다, 그런데 승천까지의 모든 과정이 너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절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니까.
그 예로 광야에서의 사건을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했던 사건이 40년 동안 줄을 이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홍해를 건너서 신 광야에서 출발해가지고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겠어요, 가축이고 아이들이고 부모님들도 다 목이 말라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기껏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끌어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도대체?'
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역했다고 남의 얘기처럼 말하기에는 우리 처지가 허락하지 않아요.
요즘 날씨가 조금 더워졌어요.
아이가 중학교를 가는데, 집에서부터 한 20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끝나고 20분 정도 걸어오면 날씨가 더우니까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냉장고로 가서 음료수를 따라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20분 걸었어요, 그러나 그 거리는 광야가 아닙니다.
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언덕을 지나고 대로변을 지나서 아파트 사이를 빠져나오면 됩니다.
모래만 있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사막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고거 20분 걷고 와가지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이건 250만 명 노약자가 섞여있는 무리들이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몇 날 며칠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불평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니 이건 완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런 정도의 불평을 거역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좀 불평하기 전에 어차피 주실 건데, 결국은 물을 주셨어요, 불평하니까.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주시면 안돼요?
왜 이렇게 사람을 격동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완고하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뽑아내는 겁니다.
자, 육체가 갈증을 느껴요, 육체의 느낌을 마음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욕구가 점화됩니다, 마음에 욕구가 점화되면서 마음이 육체가 느끼는 그 느낌에 종속돼버립니다.
육체가 무엇을 느끼면 그 육체의 느낌이 마음에 욕구를 점화시키면서 내 마음이 항상 육체가 느끼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타락 이후 원죄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평생 매여 종노릇 한다.
어디에 매인다는 거예요? 육체에 매이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은 육체에 매이면 안돼요,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필요한 것을 금하시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육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지 우리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격동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물을 안 주시고 버티십니까?
육체의 느낌이 강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렬한 육체의 느낌이 마음에 강한 욕구를 점화시킬 때, 그때 이걸 끊으라는 걸 가르쳐주십니다.
지금 너의 상태는 마음이 나를 따르지 않고, 계속 육체의 느낌이 네 마음에 전달되는 대로 육체를 따라가니까.
그게 꼭 밥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이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그 느낌이 마음에 욕구를 점화시키고,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너의 삶은 내가 장관 시키려고 계획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에 따라 육체가 움직여가야 되는데, 육체가

느끼는 느낌대로 마음이 움직여가고 있으니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주실 것이고, 애굽을 초토화시키면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말라 죽게 하시겠습니까, 굶어죽게 하시겠습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할 때도 마찬가지죠.
필요하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간을 연장시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40일을 금식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는 육체의 느낌이 있지만, 마귀가 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할 때, 그까짓 것 떡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맹물로 포도주도 만드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육체가 배고프다는 그 느낌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육체의 느낌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어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걸 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지 않겠다는 게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에 의해서 내 마음에 욕구가 점화되고, 그 육체의 느낌 때문에 점화된 욕구를 따라 그 욕구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게 바로 완고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미혹된다는 것은 빗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들의 마음이 빗나가서 '항상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육체에 필요한 밥과 물과 옷과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 필요한 위치와 신분 같은 것들, 다~ 인도하고 다~ 줄 텐데, 내 길이 있는데 내 길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는 원죄의 상태를 계속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안식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꼭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뭡니까?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 내 마음이 챙기려는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느낌에 따라서 점화된 욕구가 이끄는 대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고 모양으로 너희가 원죄의 상태를 고집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사십 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시험하여 증험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보게 하듯 수험생으로 만들어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본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합격점이에요,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되면 합격하시는 거고, 인정될 수 없고 의심스러우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뭐냐 하면, 완고하게 마음먹고 있는 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느끼는 느낌이 내 마음에 욕구를 점화시켰어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의 때와 욕구의 방식대로 이루어주시면' 이게 시험문제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달라는 겁니다, 이게 시험문제, 그래서 요 시험문제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시면 합격!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사업이 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일이 좀 잘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이 잘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 육체 때문에 점화된 내 욕구가 충족되고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결국 이 완고함이 뭡니까?
육체가 느끼는 느낌을 따라 내 밥그릇 내가 챙기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라 헛똑똑입니다.
진짜 똑똑한 게 누구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그릇을 받아서 먹는 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무슨 내 밥그릇을 어디서 챙긴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죄가 생기고 타락했으니 그런 얘기를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거지.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못돼먹은 거예요.
왜 못돼먹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에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을 패륜아라고 하잖아요?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것 패륜아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챙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아랫부분에 보면 '서로 권면하라'고 해요.
이렇게 안식의 삶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육체가 느끼는 느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서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챙기면서 내 육체가 움직이게끔 하는 안식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 생각과 마음을 못으로 박아가지고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사업장에서, 시장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이게 잘 안 되지만, 이것만이 길인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살아보면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삶의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광야에서 망한 자들이 누구냐 이 얘기를 반복합니다.
선민이에요, 선민.
이방인들을 광야에서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죄의 기질을 고집하면서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느라고,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좀 늦게 주셔서 갈증 나고 배고프게 하신 것은 나를 알라고 그러신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육체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이처럼 강렬하게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내가 마음이 육체에 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다.'
이걸 믿었어야 돼요, 이거 한 가지 바라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복지를 주시려고 준비해놓으셨어요.
1년 만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10억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 1년 만에 복지를 얻을 뻔 했어요, 무일푼이 아니라 사막에서 완전히 떨거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미 다 강대국을 이루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내 차지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금 복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10억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까짓 거.
10억이 없어도 우리는 100억 짜리 삶을 살 수도 있고, 10억이 있어도 내가 쓸 것이 한 푼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10억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아요.
내 통장으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주님에게 고정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돼서 내 마음이 육체에 끌려가는 이 고리만 끊어내면, 육체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육체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안식으로 들어와서 평강으로 들어와서 복지를 살게 될 거예요.
내 밥그릇 내가 챙기는 거,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 영적인 고아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 해야 되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예수님에게만 마음과 생각을 고정함으로써 내 밥그릇 내가 챙기려는 원죄적 기질이 온전히 죽게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 복지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